

##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 The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the Happiness of Young Children

허민지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김진욱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행복감을 파악하고, 유아의 행복감을 개인적 특성 변인(자아탄력성), 가족관계 변인(가족건강성), 보육환경 변인(유아교육기관 적응)으로 설정하여 이들 변인이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각 변인들이 유아의 행복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시에 규명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재한 8개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4, 5세 유아 154명, 유아의 어머니 154명, 담임교사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이정화(2005)가 개발하고 김도란과 김정원(2008)이 유아 수준으로 수정, 보완한 유아의 행복감 검사도구와 LeBuffe와 Naglieri(1999)가 개발하고 고영희(2010)가 수정, 보완한 유아 자아탄력성 검사도구,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개발하고 한명숙(2013)이 수정, 보완한 가족건강성 검사도구, Jewsuwan, Luster와 Kostelink(1993)가 개발하고 임원신(2006)이 수정, 보완한 유아교육기관 적응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Pearson 적률상관 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과 관련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유아의 성별, 연령에 대해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유아의 성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변인인 자아탄력성( $r = .41, p < .01$ )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변인인 가족건강성( $r = .36, p < .01$ )과 보육환경 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 $r = .42, p < .01$ ) 또한 유아의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행복감에 대한 개인 특성적 변인(자아탄력성), 가족관계 변인(가족건강성), 보육환경 변인(유아교육기관 적응)의 상대적인 설명력은 유아교육기관 적응,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유아의 행복감에 대해 26%의 설명력을 갖는다. 이 중 유아교육기관 적응  $\beta$ 값은 .28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탄력성 회귀계수  $\beta$ 값은 .20로 유아교육기관 적응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족건강성 회귀계수  $\beta$ 값은 .17로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는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아탄력성이 높고,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면 유아의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의 행복감 증진에 관한 정책적 함의와 유아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Key word:** 어린이집, 유아, 행복감, 변인